



흔들리는 KIA 전력… 집토끼 ‘이탈 방지’ 성공할까

박찬호 4년 80억원에 두산행…내부 FA 5명 남아
베테랑 최형우 협상 관건…마운드 3인방 주목도



박찬호의 이적으로 전력 구성에 빨간불이 켜진 KIA타이거즈가 남은 집토끼 단속에 성공할 수 있을까.

18일 두산베어스는 박찬호와 4년 총액 최대 80억원 (계약금 50억원·연봉 총 28억원·인센티브 2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주전으로 활약한 박찬호는 그야말로 검증된 자원이자, 1군 통산 타격 성적은 1088경기 3579타수

951안타 23홈런 353타점 타율 0.266 OPS(출루율+장타율) 0.660. 올해에는 134경기에서 148안타 5홈런 42타점 타율 0.287을 기록했다.

타격 성적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으나 수비에서는 확실히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다. 수비상이 신설된 지난 2023년부터 2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골든글러브까지 거머쥐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더욱이 그는 통산 187개의 도루에 성공하는 등 주루 능력도 갖췄다.

유격수 박찬호가 이탈하게 되면서 KIA

에게는 치명적인 전력 공백이 생겼다.

문제는 남은 내부 FA 자원도 많다는 점이다. 전력 누수를 최대한 막기 위해 베테랑 최형우와 양현종, 불펜 조상우·이준영, 포수 한승택 등 5명 모두를 잡아야 한다.

특히 최형우와 양현종은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팀의 상징성 또한 큰 선수들이다. 이들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뜻이다.

지난 2017년부터 KIA에서 활약한 최형우는 올 시즌 만 41세의 나이에도 133경기 144안타 24홈런 86타점 타율 0.307 24홈런 OPS(출루율+장타율) 0.928의 호성적으로 견제함을 과시했다.

물론 곧 에이징커브를 겪는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능력을

스스로 증명했다. 여기에 팀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선수들을 아우르기도 했다.

2007년 KIA 유니폼을 입고 데뷔한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KIA에서만 뛰었다. KIA의 2009년, 2017년, 2024년 우승의 영광을 함께한 선수다.

올 시즌 성적은 30경기 7승 9패 153이닝 86자책 101실점 171피안타 평균자책점 5.66. 수치로 따지면 좋은 성적은 아니다. 그럼에도 올 시즌 유일하게 부상 없이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했다는 것 자체가 팀에겐 큰 역할이었다. 11시즌 연속 150이닝과 100타삼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살아있는 전설이기도 하다.

불펜 조상우 역시 중요한 카드다.

그는 올 시즌 72경기 6승 6패 60이닝 1세이브 28홀드 평균자책점 3.90의 성적을 기록했다. 팀 내 가장 많은 홀드수를 기록했고, 두 번째로 많은 경기를 책임졌다. 구위 저하로 시즌 중간 기복을 겪긴 했지만, 필승조로 꾸준히 등판하며 마운드를 지켰다.

또 지난 8월31일 kt위즈전 이후 11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선보이는 등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더욱이 그가 이탈한다면 전상현, 성영탁, 정해영 등 기존 불펜 자원들의 부하가 자연스레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24년 통합 우승에 기여한 좌완 이준영도 마찬가지다. 그는 올 시즌 57경기 3승 1패 34이닝 7홀드 평균자책점 4.76을 기록했다.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많은

경기를 책임지며 자신의 몫을 해냈다. 여기에 좌완 불펜 자체가 귀중한 자원인 만큼, 마운드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잔류가 필요하다.

베테랑 포수 한승택은 올해 김태균과 한준수에게 밀려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00타수 이상을 소화하는 등 통산 600경기 이상을 뛰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에 팀 전력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내부 FA 5명을 모두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치솟는 선수들의 몸값과 샐러리캡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전력 구성 시험대에 오른 KIA가 남은 집토끼 단속과 공백 메우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박찬호, 이제는 꿈 군단…두산과 4년 계약 도장

FA 1호 계약… 최대 80억원

2026 자유계약선수(FA) 시장 최대어로 꼽힌 KIA 타이거즈 유격수 박찬호(30)가 내년부터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게 됐다. 올해 FA 시장이 지난 9일 문을 연 이후 9일 만에 나온 2026년 FA 1호 계약이다.

두산은 18일 “박찬호와 4년 총액 80억원(계약금 50억원·연봉 총 28억원·인센티브 2억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육성과 내부 FA 잔류에 주력했던 두산은 그룹의 지원 속에 ‘박찬호 영입전’에서 최종 승리했다.

두산 관계자는 “박찬호는 리그 최고 수비력을 갖춘 유격수로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 내야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자원”이라며 “리드오프로서 기량은 물론 공격적인 주루 능력도 갖춰 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박찬호는 “어린 시절 두산베어스 야구



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그 팀의 유니폼을 입게 돼 영광스럽고 벅하다”며 “좋은 계약을 해주신 두산베어스 박정원 구단주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내 야구의 모토는 ‘허슬’이었다. 지금까지 해온 플레이가 두산베어스의 상징인 ‘허슬두’와 어울릴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박찬호는 이어 “12년간 응원해주신 KIA 타이거즈, 또 광주 팬들에게 감사드

린다. 앞으로도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A등급 박찬호를 영입한 두산은 KIA에 보호선수 20인 외 보상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 200% (9억원) 또는 전년도 연봉 300% (13억5000만원)를 내줘야 한다.

2014년 2차 5라운드 50순위로 KIA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한 박찬호는 2019년부터 주전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골든글러브를 받았다.

박찬호의 성적은 1군 통산 1088경기 타율 0.266, 23홈런, 353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660이다. 올해에는 134경기 타율 0.287, 5홈런, 42타점을 올렸다.

타격 성적은 뛰어나지 않지만, 박찬호는 올해 정규시즌에서 1114.1이닝을 그라운드에선 ‘수비 잘하는 유격수’다. 통산 187개의 도루에 성공하는 등 주루 능력도 갖췄다.

두산은 박찬호가 FA 시장에 나오자 영입전에 참전했고 거액을 투자해 박찬호의 마음을 얻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전남 장애인사격연맹 백승학, 도쿄 데플림픽 ‘동’

남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 3위…대한민국 선수단 첫 메달

전남장애인사격연맹 백승학이 ‘2025도쿄데플림픽(Deaflympics)’에서 남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 동메달을 따냈다. 대한민국 첫 메달이다.

백승학은 최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국립훈련센터 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사격 남자 공기소총 10m 결선에서 223.6점을 쏜 스리칸트 다르쉬(252.2점), 바니아 모하메드 무르타자(250.1점·이상 인도)의 뒤를 이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77개국에서 2344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대규모 국제 대회로, 청각장애인 선수들에게는 ‘올림픽’이라 불릴 만큼 권위 있는 무대다. 백승학은 처음으로 데플림픽 무대에 도전하며 한국 선수단에 대회 첫 메달을 안겨준 큰 의미를 더했다.

백승학은 지난해 대한민국 농아인사격 국가대표로 발탁된 이후 꾸준한 노력

과 실전 감각 향상을 통해 이번 대회 출전을 확정 지었다. 그는 대회 첫날부터 안정된 사격 실력을 선보이며 시종일관 집착한 경기 운영으로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

백승학이 보여준 도전정신과 끊임 없는 노력의 성과는 전남 장애인체육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이번 대회 50m 화약소총과 10m 공기소총 혼성경기 종목에도 메달에 도전한다.

박상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남 출신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발전과 선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